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르는 탐욕의 시대

자본주의 이면에 드리워진 욕망 모든것



욕망사회

성정모 지음

사람은 본능적으로 무언가를 원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 노력을 기울인다. 그러나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결핍이 시달린다. 원하는 것을 얻었음에도 또 다른 무언가를 끊임없이 갈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프로이트는 욕망을 충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죽음' 뿐이라고 말했다.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질 수 없음을, 욕망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현대사회에서 욕망의 문제는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다. 일반적으로 욕망은 '소비'의 관점에서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다른 관점에서는 갈증과 욕심으로 비추기도 한다. 그렇다면 과연 욕망은 무엇이며 인간은 왜 욕망하게 될까?

해방신학의 지평을 '인간의 욕망 문제'로 넓힌 선구적인 신학자로 평가받는 성경학자 신학자 페넬 '욕망사회'는 자본주의 사회 이면에 드리워진 욕망의 모습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저자는 권력과 부를 가진 자들로부터 해방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자 하는 해방신학을 토대로 욕망을 이야기한다.

역사적인 관점에서 1960년대는 급격한 미국의 산업 생산성 향상에 힘입어 급격히 소비가 늘었던 시기다. 돈의 개념이 달라지고 부를 욕망하는 사회 분위기로 인해 절제된 부의 축적 태도는 힘을 잃고 말았다.

저자는 욕망사회의 문제를 "우리가 원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는 인식이라고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욕망하는지도 모른 채 끊임없이 욕망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사실 오늘의 시대가 탐욕의 시대라는 것을 많은 이들은 공감한다. 욕망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날 수 없을 만큼 욕망의 노예로 전락한 지 오래다. 저자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 것"이라고 단언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현실에 대한 날카로운 상황 직시와 욕망의 본질을 꿰뚫는 시각이 필요하다. 이에 앞서 우리 스스로가 욕망을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세의 전환도 요구된다.

<휴·1만1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흡혈곤충 빈대는 어떻게 인류와 공존했나

빈대는 어떻게 침대와 세상을 정복했는가

브룩 보렐 지음



흔히 남에게 빌붙어 사는 행태를 '빈대 불다'라고 말한다. '빈대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상당히 모욕적인 말이다.

'빈대'는 인류의 몸에 기생하는 혐오스러운 벌레로 인식돼 왔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잘 보이지 않고 밤에만 활동하기 때문이다. 또한 침실 속에 숨어 인간의 피를 빨아먹는 성격이 곤충이다.

빈대는 오랫동안 인류의 역사와 함께했다. 오랜 경전 가운데 하나인 '성경'에 나올 정도로 보편적이거나 얼마나 인류를 괴롭혀왔는지 알 수 있다. 사도 요한마저 빈대에 대해 오늘 밤만이라도 "집을 떠나 다른 곳에 안전히" 있어 달라고 간청했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빈대를 사회사적, 문명사적 관점에서 조명한 책이 출간됐다. 미국의 과학자이자 과학 전문 집필가인 브룩 보렐이 펴낸 '빈대는 어떻게 침대와 세상을 정복했는가'는 흡혈곤충 빈대와 인류가 벌이는 공존과 퇴치의 역사를 펼쳐낸다.

저자가 집필을 하게 된 것은 빈대에 몰린 사소한 경험이 계기가 됐다. 지난 2004년 다리에 오물토듯한 돌기가 돌아



코미디 공상과학시리얼 록 뮤지컬 '빈대들'의 한 장면. 레게머리와 망토를 걸치고 빈대로 분장한 모습이 이색적이다. <위즈덤하우스>

종아리 중간까지 퍼진 것이다. 진드기가 옮기는 라임병 검사를 받았고 염증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복용했다.

빈대에 몰린 경험은 저자로 하여금 인류의 공존과 불화로 이어진 오랜 역사(25만년)로 확장된다. 다양한 예술작품과 문헌 속에서 빈대는 인류의 상상력을 끊임없이 자극하는 존재였다. 악취를 풍기고, 성병을 옮기며, 악마를 따르는 괴물로 묘사되는 등 불결하고 혐오스러운

대상이었다.

인류는 이런 빈대를 박멸하기 위해 기이한 행동을 감행하기도 했다. 이집트인은 빈대를 쫓아내기 위해 주문을 외웠고 그리스인은 죽은 동물의 발을 미끼로 던졌다. 발간인은 바닥에 말린 공약을 깔았으며 어떤 이는 신체에 치명적인 수은을 분사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빈대를 혐오해 죽이려고만 한지는 않았다. 인류는 각종 치료제로 사

용하기도 할 만큼 공존의 방법을 모색하기도 했다. 중국인은 피부 연고제로, 로마인은 귀병 치료제로, 미국인은 변비와 치질 등에 사용하는 만병통치약으로 이용했다.

하지만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인류는 빈대를 '박멸 가능한 벌레'로 인식한다. 많은 연구자들과 국가 보건당국 그리고 자본가들은 과학기술에 힘입어 빈대를 정복 직전에까지 이른다. 실제 이들은 화학 살충제를 발명해 "일자폭탄을 터트리듯" 분사하며 빈대를 향한 오랜 두려움에 마침표를 찍어줬다.

그러나 생태주의자 레이첼 카슨의 지적대로 인간과 자연은 서로 정복하거나 지배당하는 관계가 아니다. 자연은 빈대에 인류와 공존할 수 있는 돌연변이 유전자들을 선사했던 것이다.

저자는 빈대에 시달려온 인류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해낸다. 그것은 인간들은 빈대에 시달릴수록 이 곤충을 자신에게 옮긴 것으로 추정되는 이들을 혐오했다는 것이다. 실제 빈대 진원지로 추정되는 노숙자 쉼터, 난민촌, 공중주택 등 소비없는 이들의 거주지가 빈대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정말로 인류는 빈대를 박멸할 수 있을까. 언급대로 빈대는 오랫동안 인류의 생활양식에 적응해왔다. 마찬가지로 인류 역시 빈대를 통해 수없는 이야기와 과학을 창조해왔다. 과연 인류와 자연, 인간과 빈대가 공존하는 길은 없을까. 저자가 서문에서 한 말이 사투어처럼 "빈대도 알면 알수록 정말 놀라운 생명체였다."

<위즈덤하우스·1만8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셰익스피어 등 예술가들이 일깨우는 '공감 인문학'



몰리타는 없다

이진숙 지음

인간이 신적인 것을 부여받은 것 중에 하나를 꼽는다면 '공감'도 이에 해당할 것이다. 유한한 인간이 신처럼 자아를 확장할 수 있는 수단으로 바로 공감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앎을 넘어서 지혜에 이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고전문학을 토대로 공감 인문학을 펼쳐보였던 이진숙 씨가 이번에는 '몰리타는 없다'(2권)를 펴냈다. 책에는 셰익스피어, 피츠제럴드, 몽크 같은 거장들이 예술 형식에 갇혀 있지 않고 작품 속에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진리를 담아내는 데 어떤

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담겨 있다.

저자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가치가 목표가 아닌 수단으로 전락할 때 삶은 망가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예술은 바쁜 삶에서 지나치게 쉬운 상처와 고통을 보여주는 창이다. 위대한 문인들과 화가 등 예술인들은 시공간을 초월해 고민과 고통을 나누었다. 즉 그들의 고통과 고민은 당대에만 한정되지 않고 지금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문제다. 거장들 삶과 사유가 시공간을 초월해 현재의 우리 가슴에 와 닿는 이유다.

"강한 자는 약한 자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한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 타인의 행복에 대해 공감하지 않는 인간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다. 그것은 파멸이다. 우리가 이 책을 통해 읽고 감상할 위대한 고전 문학과 미술은 이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한다."

<민음사·각1만60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코끼리 눈에 비친 인간의 현실과 허구



코끼리의 여행

주제 사마라구 지음

마르케스, 보르헤스와 함께 세계문학의 거장으로 꼽히는 사마라구(1922~2010)는 환상적 리얼리즘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문학세계를 개척했던 작가다. 노벨상 수상자인 그는 현실과 허구, 우화와 비유를 가로지르며 신랄한 풍자로 세계의 많은 작가들과 독자들을 매료했

다. 그의 유일한 장편이었던 '코끼리의 여행'이 출간됐다. 소설은 1551년 포르투갈 국왕 부부가 오스트리아의 사촌 막시밀리안 대공에게 코끼리 '솔로몬'을 선물한 실제 사건에서 출발한다. 종교개혁과 재정난으로 몸살을 앓던 포르투갈이 신교인 루터주의에 동조하는 대공에게 '진귀한' 코끼리를 보낸다.

작가는 시종일관 마침표와 쉼표 외에는 문장부호를 사용하지 않고 단락 구분도 거의 하지 않는다. 제목도 없는 18개의 장을 끝없이 이어가는 동안 내레이터가 소설에 개입해 웃음을 유발하는 방식을 취한다. <해남·1만4500원> /박성천기자 skypark@kwangju.co.kr

행복한 세상 꿈꾸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메시지



촛불의 노래를 들려라

이해인·이문재 외 지음

'저렇게 작은 촛불이 어쩌면 이렇게 멀리까지 비쳐 올까? 험악한 세상에서 내가 쫓겨나도 저렇게 착하게 빛날 거야.' (윌리엄 셰익스피어) 촛불은 빛으로 말하는 시대의 언어다. 자기 몸을 태워 어둠을 밝히는 헌신의 메시지가 담겨 있기 때문에 숭고하다.

그래서 촛불은 또한 존엄하고 거룩하다. 불꽃을 통해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던지는 '촛불의 언어'를 담은 잠언집 '촛불의 노래를 들려라'가 나왔다. 행복한 세상을 꿈꾸는 사람들이, 바람 앞에 약하고 비에 약하지만 그 의미만큼은 강한 촛불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해인 수녀, 이문재 시인, 함성호 시인 등 국내 작가들은 물론 이미 세상을 떠난 작가들, 국내외 문학작품과 그 작가들의 정신을 담은 작품들이 책 안에 가득하다. 시인, 소설가, 철학자, 수행자 등이 촛불에 대한 이야기는 기도이자 소망과 염원이다. <마음의 숲·1만3000원> /이보람기자 boram@kwangju.co.kr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 남가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상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59만원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신가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체 010-3600-9955

대산프리모

건축물에 예술을 입히다! 프리미엄 외벽 디자인방수

이파엘지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시스템

4천여 가지 이상의 다양한 디자인 용매지 패턴컬러로그에서 선택가능

아트패션시트 외벽방수 리모델링 특장점

- 방수성능은 기본, 단열 및 보온효과까지 있어 냉 난방비 절감, 에너지 절약
- 건축 내외장재 패턴디자인 한 엔디나외의 클라보 디자인!
- 외벽에 옷 입히듯 시공함으로써 건물을 헐지 않고도 새 건물처럼!
- 물에 강하고 불에는 더 강한 안전한 난연형 외벽 시트!

방수가 2-3년만 가만 된다고요? 20년을 가는데!!!

특허 제10-0952035호
특허 제10-1097764호
특허 제10-0548189호

특허방수공법 이파엘지 옥상방수

대한건축사협회 우수건축자재추천제품
트라이슈머 단열복합시트 방수시스템

2중단열 단열방수
냉난방비 절감
탁월한 내구성과 내열성
6년 무상 A/S

IPALG (주)이파엘지종합특수방수

광주전남 대리점 (062) 511-0444

010-6603-0405

목포대리점 (061) 284-0485
여수대리점 (061) 683-0485
순천대리점 (061) 726-0482
광양대리점 (061) 795-0485